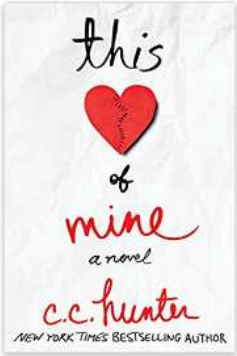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THIS HEART OF MINE
가제 : 나와 너의 심장
저자 : C.C. Hunter
출판사: Wednesday Books
발행일: 2018년 2월 27일
분량 : 352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전자 책 포함 미국에서만 *100*만 부 이상 판매되고 *13*개 대륙에서 출간된 베스트셀러 『*Shadow Falls*』 시리즈의 작가의 신작**

*** 특별한 심장을 이식 받은 소녀, 공여자의 수상한 죽음에 얽힌 비밀을 추적하며 만난 사랑과 가슴 아픈 이야기, 살아 남았기에 느끼는 죄책감을 생생하게 그린 소설**

우리는 쉽게 몇 년 뒤 무엇을 할 것인지 이야기하고 계획을 세우지만, 사실 인생은 바로 한 시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알 수 없는 불확실함으로 가득하다. 건강하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될 꿈에 부풀었던 레아도 10학년 때, 그 사실을 뼈저리게 느껴야 했다. 희귀한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심장이 말 그대로 '멈춰'버리는 병에 걸린 것이다. 방법은 하나. 건강한 심장을 이식 받는 것뿐이다. 하지만 혈액형이 AB형이라 거부반응 없이 잘 맞는 심장을 찾을 수 없었고 그 사이 건강은 급속히 악화됐다. 이제 졸업반이 된 레아는 몸 속으로 튜브가 연결된 인공심장에 겨우 목숨을 연명하고 있다. 튜브와 연결된 기계장치와 배터리가 담긴 작은 가방을 항상 가지고 다녀야 하는 상태가 된 뒤부터, 레아는 학교에 나가지 않았다. 그런 이상한 몰골이 부끄러워서라기보다 주변 친구들의 안쓰러운 시선을 견딜 자신도 없었고 죽어가는 자신을 보며 남들이 괴로워하는 것도 원치 않았다. 그렇게 조금씩, 심장 이식의 희망을 조금씩 놓으며 마음속으로 죽음을 준비하던 레아에게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다. 꼭 맞는 심장, 그것도 같은 학교에 다니던 친구의 심장을 이식 받게 된 것이다.

매트와 에릭 두 쌍둥이 형제는 모르는 여학생이 없을 정도로 인기가 하늘을 찔렀다. 짙은 색 머리카락과 보는 사람도 같이 미소 짓게 만드는 예쁜 미소, 운동으로 다져진 탄탄한 몸매는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레아는 학교 출석은 포기했지만 고등학교 졸업장은 따고 싶었고 다행히 학교 선생님들이 직접 과외를 해주기로 한 덕분에 집에서 수업을 따라갈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 대신 과제를 봐주러 온 매트와 단둘이, 그것도 집에서 몇 시간을 보낼 기회

가 찾아왔다. 레아의 상태를 알고 애써 외면하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달리 모른 척 하지 않고 툭 터놓고 물어보는 매트에게 레아는 마음을 완전히 빼앗겼다. 사실 예전부터 좋아했지만 별로 마주칠 기회도 없었거니와 워낙 인기가 많은 아이이고 자신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니 아예 꿈도 꾸지 않던 일이었는데 막상 눈 앞에 나타나지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인연은 한 달 후,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시 이어진다. 매트의 쌍둥이 에릭이 죽어가는 상태로 발견된 것이다. 그리고 에릭의 심장은 레아에게로 이식됐다.

사람들은 에릭이 헤어진 여자친구 때문에 자살을 시도했다고들 이야기했지만 매트는 믿지 않았다. 전쟁 영웅인 아버지가 남긴 총이 에릭 곁에서 발견된 것이나, 여러 가지 정황은 그런 의심을 제기하기에 충분했지만 매트는 누구보다 에릭을 잘 알기에 절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에릭의 심장을 이식 받은 레아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밤마다 의미를 알 수 없는 꿈들이 이어지고, 심지어 깨어 있을 때도 이상한 환상이 눈앞에 나타났다. 레아는 에릭의 수수께끼 같은 죽음과 분명 관련이 있다는 확신이 들어 매트에게 그 사실을 털어놓고, 놀랍게도 매트 역시 레아와 비슷한 꿈과 환상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두 사람은 에릭이 누군가에게 살해당했다고 보고 함께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한다.

매트와 레아 사이에 서서히 피어나기 시작한 사랑의 감정, 잡힐 듯 말 듯 쉽사리 나타나지 않는 범인의 실체는 두 사람을 또 다시 아무것도 예상할 수 없는 인생의 구불구불한 길로 데려간다. 그리고 레아는 죽음을 준비할 때보다 살아내는 것에 훨씬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다. 레아는 새로 얻은 소중한 심장과 사랑을 잘 지켜낼 수 있을까? 삶과 죽음, 살아 남은 자의 슬픔과 죄책감, 풋풋한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가 탄탄한 이야기 속에 잘 어우러진 감동적인 소설이다.

<저자 소개>

C.C. 헌터(C.C. Hunter)는 크리스티 크레이그(Christie Craig)의 필명이다. 13개 대륙에 출간된 베스트셀러 YA 판타지 시리즈 『Shadow Falls』로 큰 주목을 받고 두터운 팬 층을 거느린 작가 대열에 올랐다.

제목 : BAD ROMANCE
가제 : 나쁜 사랑
저자 : Heather Demetrios
출판사: Henry Holt and Co.
발행일: 2017년 6월 13일
분량 : 368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이탈리아, 멕시코 판권 계약 체결**
*** "폭력적인 관계를 강렬하게 그린 소설. 탄탄한 친구들과 강인한 정신이 문제에서 빠져 나오는 열쇠임을 날카로울 정도로 솔직하고 강력하게 상기시켜준다." – 퍼블리셔스 위클리**
*** "데이트 폭력과 건강하지 않은 관계를 현실적으로 들여다본 이야기. 읽어볼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 커커스 리뷰**

사랑하면 상대를 어디까지 통제할 수 있을까? 물론 사람들마다 그 기준은 다르겠지만, 분명 '정상적인 사랑'에 대한 보편적인 기준은 존재한다. 집착과 폭력, 상대를 무생물이나 인형처럼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려는 비뚤어진 감정으로 빚어진 데이트 폭력이 우리나라에서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요즘 그 소재를 십대 청소년의 눈으로 바라본 인상적인 소설이 완성됐다. 저자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열여섯 살에 자신이 직접 겪은 일을 토대로 썼다고 밝힌 이 소설은 누구보다 야무지고 당찬 고등학교 졸업반 소녀 그레이스 시선에서 오랜 짝사랑이 두 사람의 사랑으로 기적처럼 바뀐 순간의 짜릿한 희열과 연애 초반의 뜨거운 감정과 더불어 서서히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남자친구의 비정상적인 집착과 그 무서운 족쇄에서 무사히 빠져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현실적으로 그린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이성을 무너뜨리고 판단력을 흐릴 수 있는지, 누구도 도와줄 수 없다고 느낄 때의 고립감은 사실이 아니라 절망한 자신이 만든 또 하나의 허상일 뿐 기꺼이 손 내밀어줄 사람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흥미로운 소설이다.

연극반에서 활동하며 뉴욕이나 파리에서 유명한 예술가로 살고 싶다는 당찬 꿈을 가진 그레이스는 넘치는 카리스마와 유쾌한 성격으로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늘 즐겁게 지내지만 사실 수시로 앞날이 보이지 않는 절망에 사로잡히곤 했다.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부모님 때문이었다. 온 집안 식구를 제멋대로 쥐락펴락 하려고 하는 양아버지는 걸핏하면 분노를 폭발하듯 내질러 가족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고, 심한 강박증에 사로 잡힌 엄마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먼지를 닦아내야 한다며 하루 종일 집 안 곳곳을 병적으로 쓸고 닦고, 바보처럼 양아버지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며 살았다. 그레이스는 그런 엄마를 돕기 위해, 그리고 양아버지의 화를 돋우지 않기 위해 끝도 없는 집안일과 자질구레한 요구를 다 처리하며 살았다. "독재자가 군림하는 왕국." 이것이 그레이스가 생각하는 집의 상태였다. 개빈은 그런 그레이스에게 나타난 말 탄 왕자였다. 인기만점 락 스타에 카리스마 넘치는 그를 사실 오래 전부터 좋아했지만 개빈은 그레이스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다. 하지만 우연한 기

회에 서로를 마주보게 된 두 사람은 순식간에 사랑에 빠졌다. 집도, 좁아터진 도시도 무조건 벗어날 생각만 하고 살던 그레이스는 처음으로 행복이라는 감정을 느낀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을 지켜주겠다고 맹세하는 개빈은 너무나 듬직한 남자친구였다. 그런데 두 사람이 연인이 된 직후부터 그레이스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조언 혹은 경고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개빈과 사귄 적이 있는 아이들은 그레이스에게 예전 남자친구나 좋아했던 사람 이야기를 절대 입 밖에 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다. 개빈은 질투심이 엄청나서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사실 몇 번 데이트를 하면서 그레이스는 개빈이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자신을 소유물처럼 대하고 집착한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그만큼 개빈의 마음이 절실하고 애틋하다고 느꼈을 뿐이다. 둘이 함께 있을 때면 심장이 터질 것처럼 차오르는 그레이스 자신의 뜨거운 감정처럼, 상대도 그 주체할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힌 것이라 생각했다. 사랑의 중독성이 이런 것이구나 생각하는 그레이스에게 언니들도 엄마의 삶을 상기시키며 냉정한 조언을 했다. 폭압적인 남자에게 힘없이 휘둘리다 신경이 병적으로 예민해진 엄마, 다 맞춰줘야 시끄럽지 않다는 잘못된 판단이 집안 식구들 모두에게 어떤 피해를 낳고 있는지 잘 보라고, 지금 그레이스의 행동은 그런 엄마와 무섭도록 닮아 있다고 언니들은 경고했지만 이런 말 역시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하지만 개빈의 집착은 날로 강도를 더해가고, 마침내 그레이스는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개빈은 만약 둘이 이별이라도 하는 날이면 자신은 바로 자살할 거라며 그레이스에게 위협을 가한다. 그리고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한다면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냐며 그레이스의 일상을 망가뜨리기 시작한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그레이스가 오랫동안 준비하고 꿈꿔온 삶도 모두 개빈 자신을 위해 포기해야 한다고, 그래야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 개빈의 주장이었다. 사랑이라고 이해하기에는 도가 지나친 행동들, 스스로도 감당하지 못하고 분출하는 감정들을 보면서 섬뜩함을 느낀 그레이스는 개빈의 감정은 모두 자신의 책임이라고 판단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깨닫는다. 과연 그레이스는 점점 비뚤어지는 관계에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을까?

위태롭고 불안한 삶에 사랑이 활력소가 될 수도 있지만 지친 영혼을 위로하는 척 오히려 에너지를 더 빼앗아가는 독약이 될 수도 있음을 현실적으로 그린 소설이다.

<저자 소개>

헤더 디메트리오스(Heather Demetrios)는 버몬트 예술대학에서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글쓰기를 공부하고 예술석사를 취득했다. 데뷔소설『Something Real』(Holt for Young Readers, 2014)로 펜 뉴잉글랜드 신인상(PEN New England Susan P. Bloom Discovery Award)을 수상했다. 이후 판타지 시리즈 『The Dark Caravan Cycle』, 『I'll Meet You There』 등을 발표했다.